



오 세 종 사장

• 약력 : 1940년생, 고려대 화학과 졸업
전 삼화콘텐서공업 사장 역임.

“

기업은 「사람이 주」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정말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제 22 회 신제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된 소감은?

사실 저희 (주)씨라텍은 기존에 나와있는 아이템으로는 뿌리를 내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특화할 수 있는 부품을 찾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것이 Chip Ferrite Beads였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다가 부차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Multilayer Ceramic Chip의 특수 사양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력사업분야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품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가능한 일이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두가지 부품에 심혈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또 부품산업의 set들이 소형화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전자공업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Chip Ferrite Beads의 개발로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 (주)씨라텍 기술진에 의해서 성공을 했는데 월 500만개 정도를 일본지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칩 웨라이트 비드는 PC 및 주변기기, 팩시밀리, 캠코더, 휴대용무선전화기 등 통신장비의 필수부품으로 국내 수요전망을 일본 무라다와 TDK에서 수입해 왔던 것인데 이번 저희의 칩 웨라이트 비드의 국산화로 수입가격에 비해 50%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관련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커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PC시장이 데스크 톱형에서 노트북형으로 전환되고 국내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출도 계속 신장, 이번 부품의 개발효과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자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장애전파를 흡수하기 위한 노이즈 대책부품으로 그동안 웨라이트 코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전자기기의 소형경량화 추세로 부품형태도 기관삽입형인 리드부품에서 표면 실장형 칩부품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 전자산업에 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사장님의 향후 사업전략은?

전략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내가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품생산 원가 cost 측면에서 남보다 어느위치에 서 있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요.

우리가 만든 물건이 다른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제품이라면 원가경쟁력은 경쟁회사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싸게 만들고 있느냐 비싸게 만들고 있느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요. 물론 기술, 가격경쟁력 이것은 저희 부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수출상품에서는 이 두가지가 항상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품에서 남보다 더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같은 신뢰성면에 있어서는 판매가에 관계없이 생산원가는 남들보다 좀더 유리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주) 세라텍의 제품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웨라이트 비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필요없는 장해전파를 제거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쓰여지는 노이즈 필터 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웨라이트 비드가 쓰여지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칩화 했지만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지요. 근래에 와서 휴대용전자제품이 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퍼스널컴퓨터나, 휴대용전화기 등이 상당히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실장면적이 제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웨라이트 비드가 칩화 되는 것

이지요. 우리는 최대한 최소화 하는 부품을 계속 만들어 갈것입니다.

연구소 운영계획은 어떠신지?

저희는 처음부터 연구소로 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연구에서부터 실제 생산까지 이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개발한 것이 생산에 직접연결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품의 기술력이라는 것을 연구소와 생산공장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품·구조·소재를 연구하고 개량연구를 하다보면 바로 생산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기업에서 처럼 연구소·생산공장을 나누어서 잘 관리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 소규모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효율적이고 봅니다.

물론 향후 수요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하면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제조부문·연구부문의 여러가지 피리·층이 없이 하나가 되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히 움직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철학이라기 보다는 저희 기업은 「사람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수한 재료·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구성원들이 정말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품의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을 염두해 두고 「재미있는 회사 신나는 회사」를 만들어 갈려고 합니다.

아직은 소규모이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갈 것입니다.